

4학년 5반의
개성있는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5반

4학년 5반의 개성있는 시화

인천용현초등학교 4학년 5반

여행 • 이진수

매일아침• 임효주

2반과 붙은 피구시합 • 홍성훈

학원 • 장현서

가을 • 지수안

학원 • 김규민

워터파크 • 김다현

월요일과 일요일 • 김서하

학용품 • 고서정

부산 • 노지성

1일 정지됨 • 최환

교통사고 • 조승우

아까운 내 시간 • 이시후

시험시간 • 흥라희

환자 • 김단우

시험지 • 김다온

방학 • 정병훈

학용품 • 송은서

수박 • 김지우

팝콘 • 이경수

총 • 정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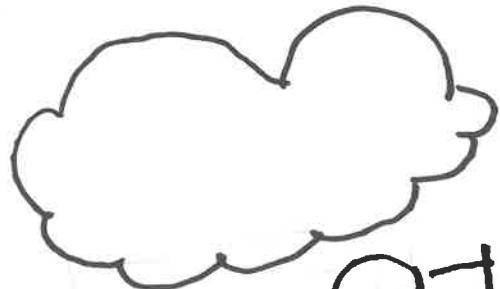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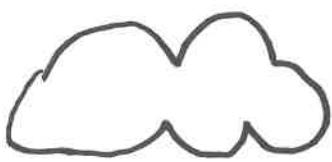
게임 • 이재윤

수박 • 김나윤

옛홈 • 나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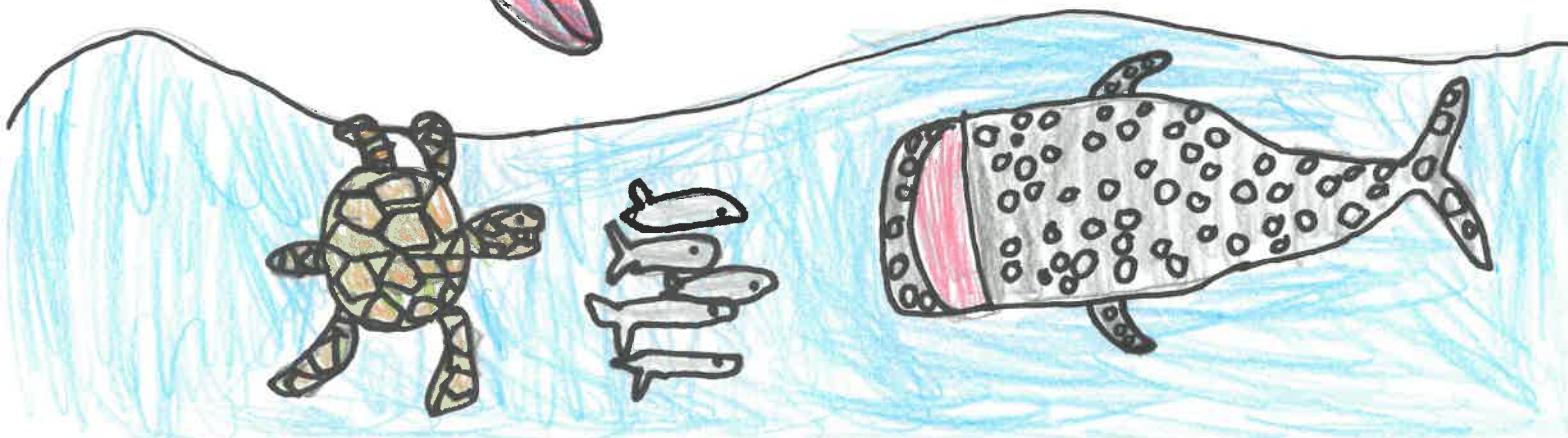
개학 • 김지민

이진수



여행

나는 가족들과 필리핀 세부를 갔다.
7+기에서 고래상어와
바다거북이를 물 속에 들어가서
보았다. 그리고 수영장에서
가족들과 놀고 필리핀 부피기도
가서 먹었다. 그리고 가족들과
놀고 잠을 잤다. 너무 재미 있었던
여행이었다. 그리고 솔레아
리조트가 너무 좋았다. 뮤지컬도
너무 재미있었다. 너무 좋았다.
가이드 분이 재미있고 재미있었다.
마사지도 받았고 받았고
너무 재미있었거나 좋았다.
여행이 좋았다.



아침다 nhạc

오늘도 7시에는 알람이 울었다

“오늘은...”

그리고 다시 눈을 뜨면...

“어? 8시가 됐어?!”

“으악! 자꾸이다!”

그때 들리는 땅마꾼 소리

“밥 한 그릇만 먹고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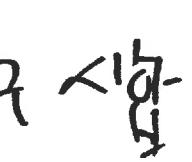
그럼 나는 “아 악여!”

라고 침대에서 뛰어난다.

7:00

아침다 nhạc



2 반고 뿐은 피구 

아무느끼고 도움이 있다

걸고는 340 으로 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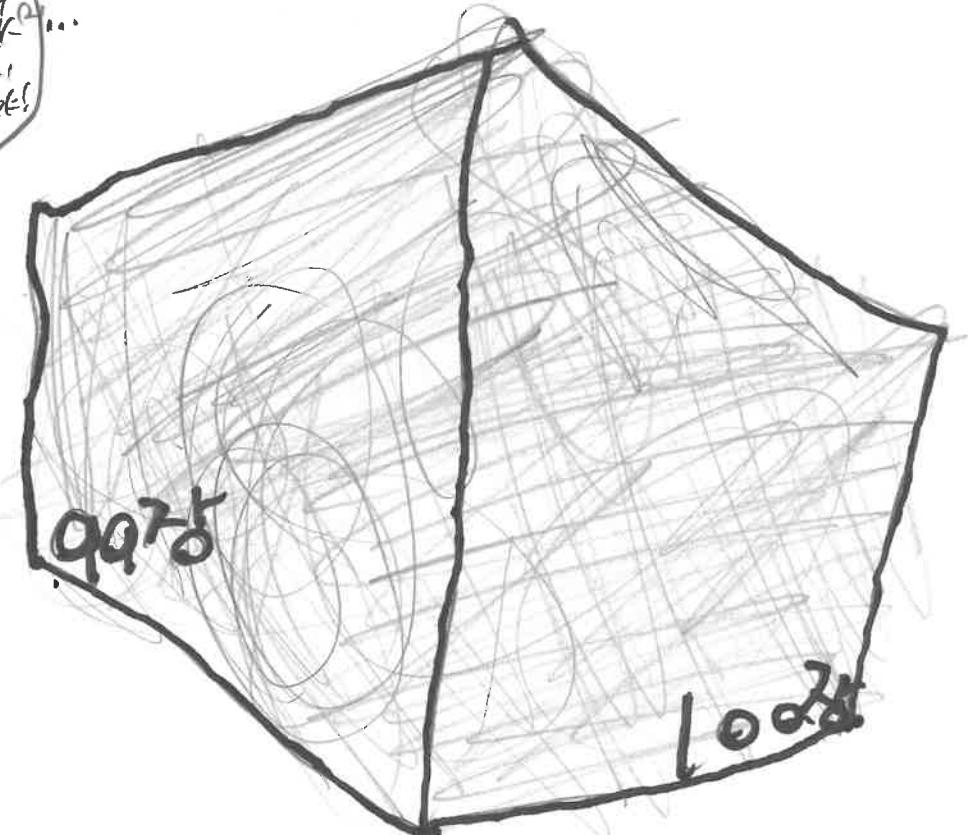
아무 느끼고 도움이 있다

온 바닥 느끼고 도움을
느끼

강현서

학원

교사가 끌어는 종소리가 끝나고 ~~점심~~ 을 먹고
학원으로 간다. 영어, 수학 문제집을 풀어도
걸어 가야되는 시간은 느리기 같다.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8장, 9장 + 10장을 풀어도 문제집은
끝이 없다.



가을

드디어 왔다. 가을
여름 다음에 가을
우리 할머니께서 좋아하시는
'가을'
바람과 함께 시원한 가을
난 오늘도 책가방과 함께
학교를 간다.



학원

학교 끝나니 학원이 기다린다 하니-지금이

학원 도착하니 많은 학습자들이 나에게
말한다 어서 풀어~ 싶어! 아니 너는 풀어
야되! 그 풀 30분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이
지나고 학원이 끝나니 집에도 학원
온몸에 힘이 풀린다 하지만 아직 학원 가는
앞 ct. ㅠㅠ



1 2 3 4 5
6 7 8 9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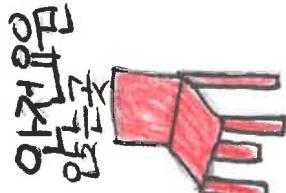
워터파크

나는 일어나자마자

후다닥 준비를 했다.
 날 워터파크에 가는 걸
 엄청 좋아한다. 이제
 차를 타는데 너무 출려
 한숨을 갔는데 별에서
 도착해서 난 바로 뒤사가
 피도풀을 갔다. 유수풀도
 타고 워터슬라이드를
 탔다 휴식시간에 냄새를
 키겁지겁 먹고 다시 후다닥
 달려가서 놀았다. 나
 에게 좋은 하루였다.

워터파크에 가자!

화장실 →



월요일 과 일요일

김서하

월요일은 마치 거북이 같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리

반대로 일요일은 토끼 같다 토끼같이



눈깜빡하면 월요일이 된다.

!!

월요일

멍....



느

깜빡

월요일 퉁..
하하..



영기출



학용 품



고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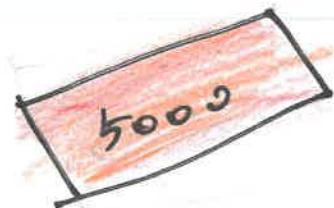
지우개는 1주일에 2번 없어지고

연필은 1주일에 3번 없어져네!..

자는 1주일에 5번 없어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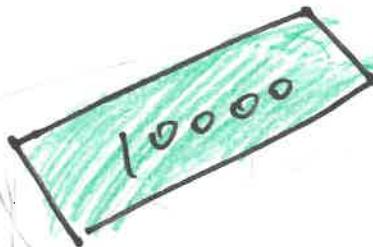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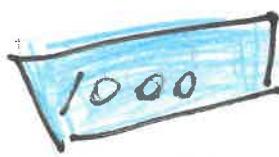
풀은 데굴 데굴

학용품 사느라 내돈은 텅텅
내 지갑도 텅텅
나의 학용품은 어디갔지?



100

500



부산

내가 부산을 갈 때 5시간

노지성

너무 힘들어다 그대 부산에 도착한대
펜션을 찾고있어다. 그래도 펜션을 찾자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다랑 인형 놀기 풍선 터트리기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펜션으로 갔다
도내, 그대 유리 대 부치쳤다 엄마 나랑 까까
놀았다. 아침으로 먹을 떼고 국밥을 먹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잤다.



101 3-12-1511
12

• H2-17.16: 00-1: 07

부산 17. 11. 01-04, 474

• 부제 17-18 단어: 유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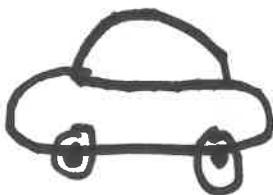
1971-01-01

510

교통사고

조승우

동굴 날 나는 사고가 났다
나는 많이 아팠다
병원에 갔다
치료를 받았다
엄마가 많이 걱정하셨다
이제부터 엄마 말 들는고 조심해야겠다



국

아까운 내 시간

시간이 너무 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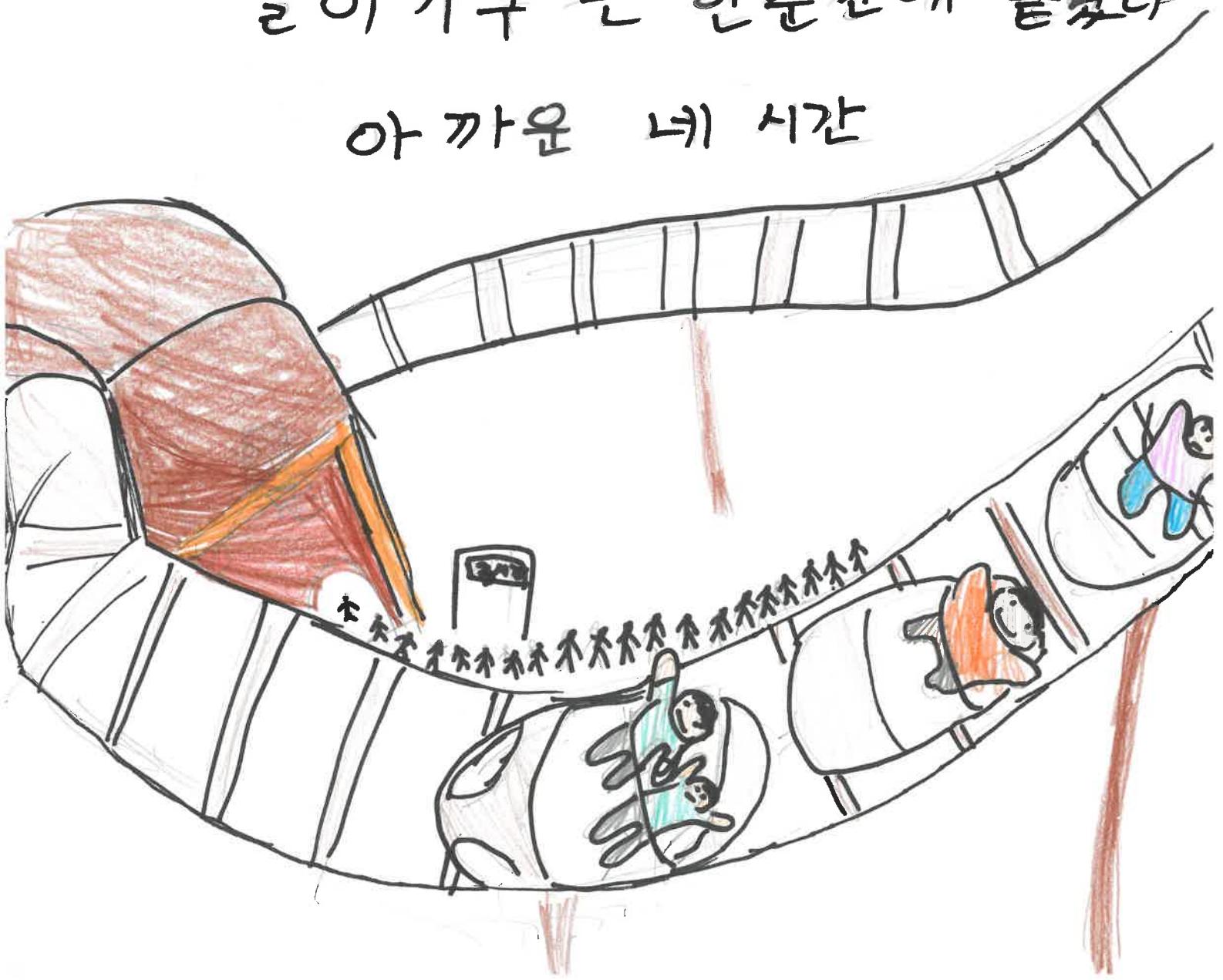
이제

기다려도 기다려도 못 탄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놀이기구는 한순간에 끝났다

아까운 내 시간



시험 시간

4교시
해마다!

홍라희

① 음악

② 국어

③ 수학

④ ~~수학~~
시험

⑤ 과학

시험 보는 시간이 다가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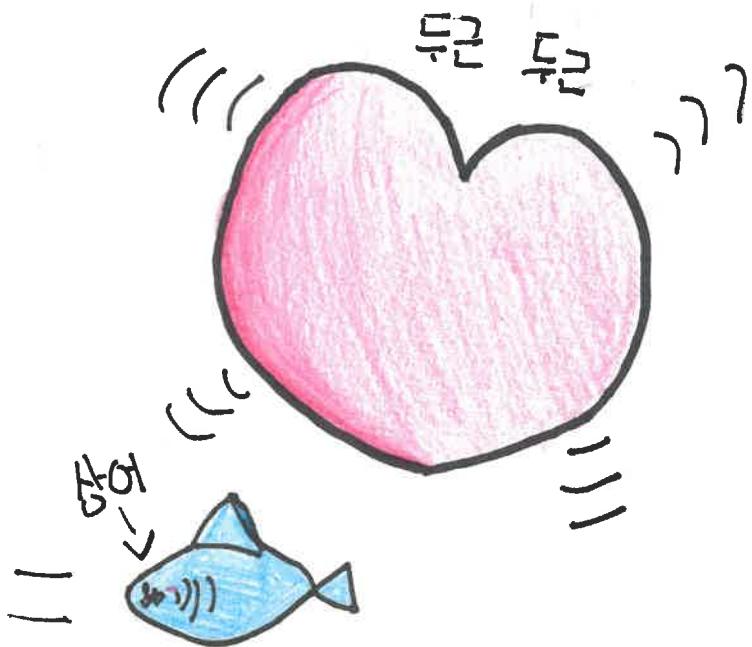
심장이 “두근 두근,,

상어 같은 시험지가 내 앞에 오면

덜덜덜

다 풀고나면 휴~~

수학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1. $1+1=$	$6. 4+3=$	
2. $2+1=$	$7. 4+4=$	
3. $2+2=$	$8. 5+4=$	
4. $3+2=$	$9. 5+5=$	
5. $3+3=$	$10. 6+5=$	



한자

김단우

"이 한자 빨리 살려야 돼요!"

심폐소생술을 했다 하지만 예전에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의사는 최후의 방법
을 썼다 "후... 안돼겠다 최후의 방법!!!!"

"咄 운우두 하 | 죽 전됐다
퍼센트 남아있던 풀 깨질 뻔 했네!"

한

풀

시험지

김다온

● 빨간비가 주륵주륵 주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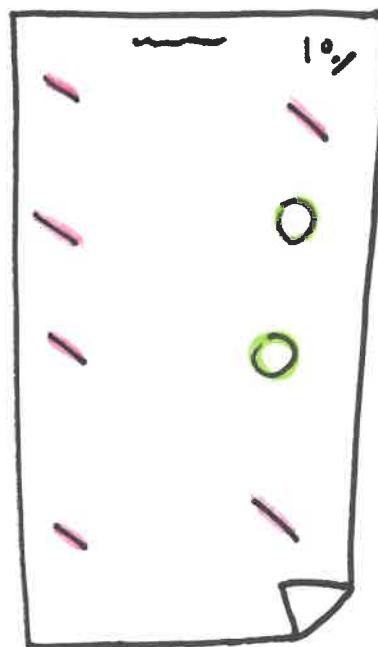
● 초록비도 있지만 빨간비도 주륵주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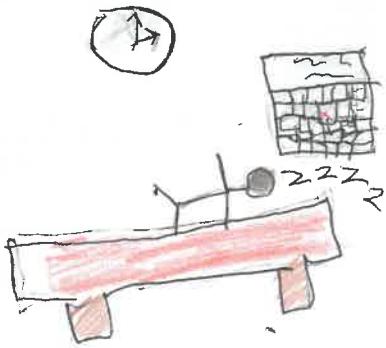
언제쯤 멈출까?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

언제쯤 나도 초록비가 내릴까?

초록비가 내리면 좋을텐데

● 공부 좀 해야겠다.





방학

드디어 그날이 왔다 바로 방학이다

한 달 동안 게임하며 놀려고 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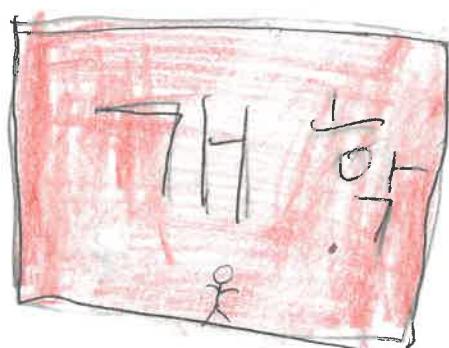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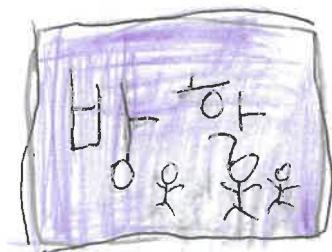
학원이다 학원이 끝나면 용돈으로

친구와 장난감 이랑 간식을 나먹을려고

진갑을 봤는데 용돈은커녕 먼저 밥에 없었다

계속 학원가고자고 를 반복하다

자고 일어 낸는데 **개학이었다**...



정병훈

투표

학용품



필통 속 물건들이 송은서 자꾸 사라진다.

연필은 바닥에서 뒹굴뒹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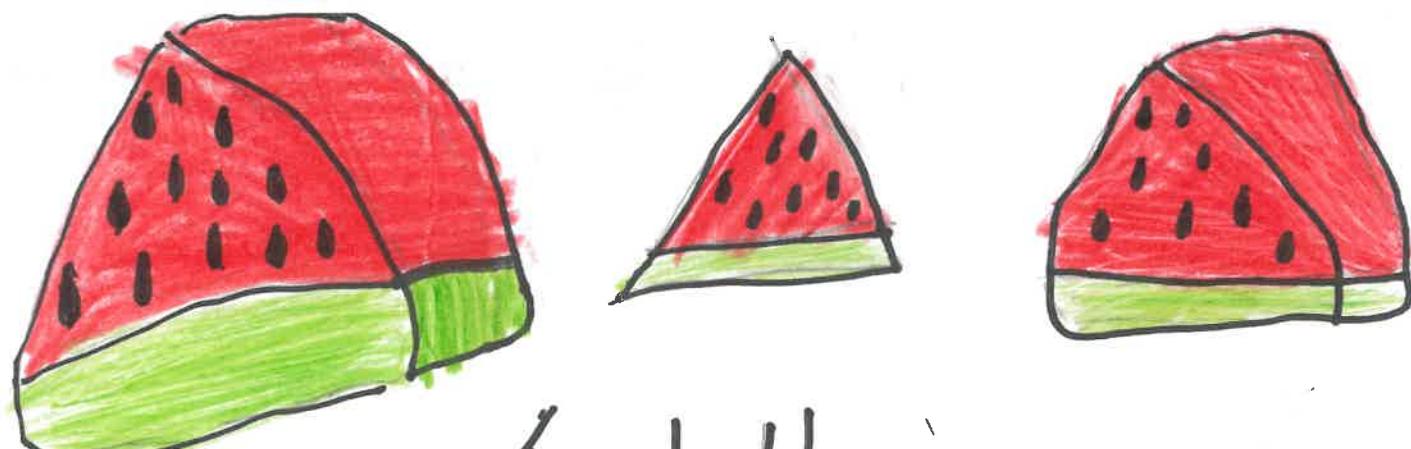
치우개는 문질문질

풀은 속싹속싹

점점 절

물건들이 사라진다.





수박

씨 나는 수박을 먹고 있다.
씨를 뺏는다.

퉤 퉤 퉤

동생도 와서 같이 퉤툐

엄마도 와서 퉤툐툐

아빠는 퉤 퉤 퉤

퉤 퉤 퉤 퉤

우리 가족은 수박 칠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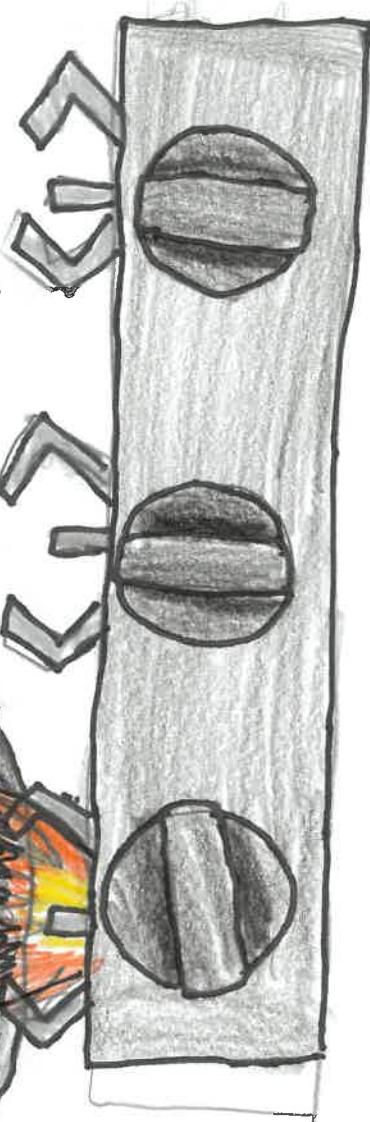


김지우

파고

파고 터지는 소리
팜 팜 팜 팜

파고이 하늘위로 퇴어 오른다
팜 누껑을 빼리 단지 흥을 으면
팜 누 있는 팜은 모두 떨어진다.



내
총

학교에 갔다 왔다

내방에 보이는 내총

장전을 하고 쌈더니

부서졌다



정윤성

21일

124주

나는 로블록스란 게임에 들어가 필리체이스란
제작을 했다 코인이 적정모아서 소닉에스란
고기울을 쌌다 그리고 WYST(와이스트) MX란
고기울도 쌌고 삼손석이란 고기울도 쌌다
삼손석한정화스킨도 쌌고 그리고 많이해서 그걸까
일제 24레벨을 찍었다 MX는 25 WYST 9
MX는 골드 찍고 WYST 실버도 올리고 러버 WYST
한정화스킨을 쌌고 키드스킨도 있는데 한정화이
있음 MX골드 찍고 WYST도 골드를 찍을 예정이다.

뉴인생감

필리체이스

이 = WY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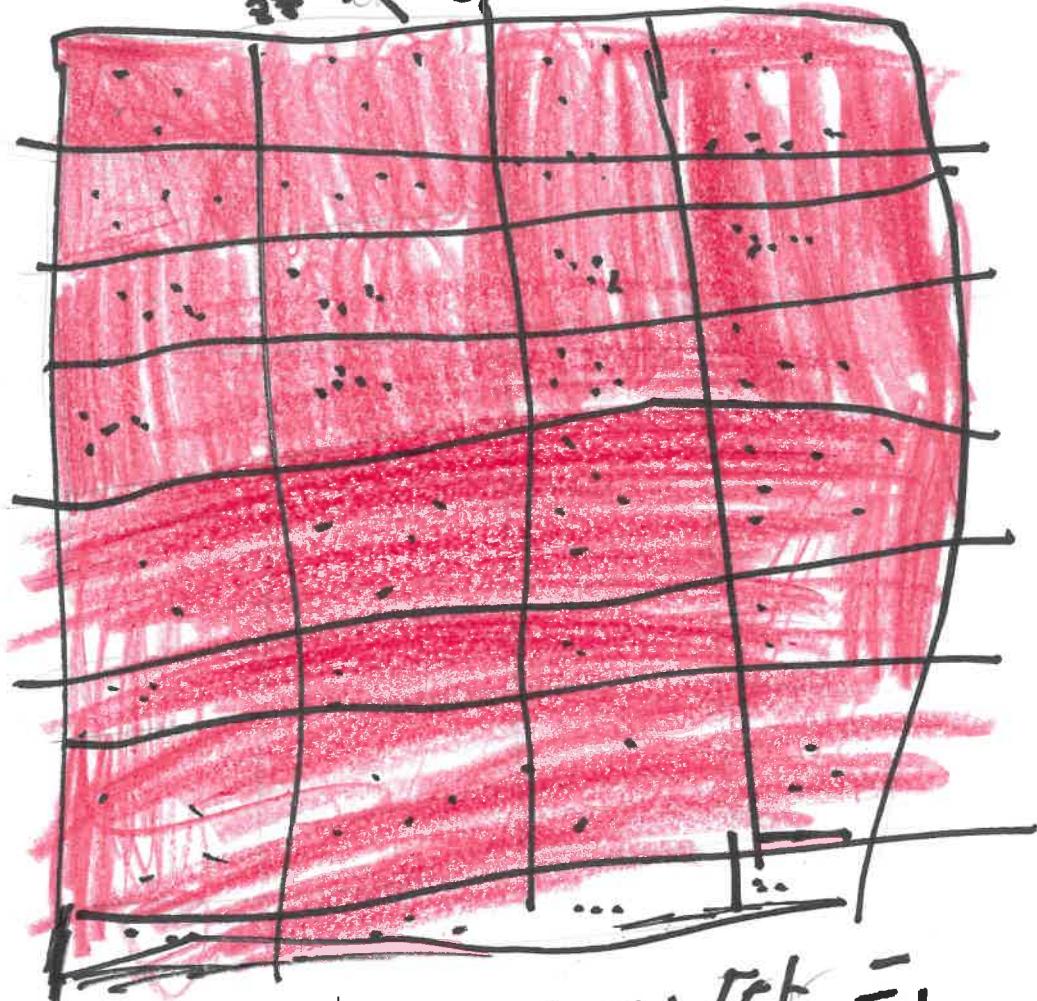
스킨

스킨



수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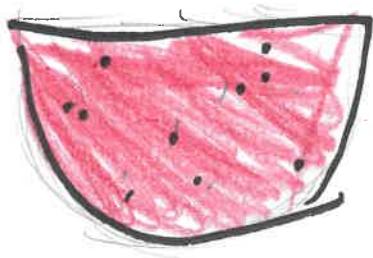
거지씨는
수박을 찾았다



심을 때 딱딱 하

소리가 정말

시다



수박 ③ 4

김나윤



제목: **애** **호**
(at home)



주제: 엄마 이
작가: 나하윤

가족이 다 함께 산책을 갔다.

우리 강아지 소이는
집에 있었다. 기다린다

윤 앞에서

기다렸다.

“언젠가 오겠지?”
식당에 갔다. (가족이)

난 계속 기다린다

“...”

우울하다.

불이 끄지고 있다.

어두워졌다.

난 계속 찾는다.

“아...” 치친다.

“도착했나?” 이지만 나온다.

집에 가 누웠다.

삑삑 소리가 낸다.

도착한거다.

나는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가족은 다 나를 안았다.

가족은 뭐라 그래도 가장
좋다!



개학

기다리고 기다리던 방학!

어.... 분명 어제 방학한거 같은데
벌써 개학이네.....

으아 ~~~~~!! ~~~

"엄마 내일 개학이야"

"으 ~~~"

방학은 짱 좋다
개학은 짱 같다.....

